

## 구강보건의 날 행사

## 배우고 실천하는 구강건강, 6·9제 행사 개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위생학과 학술 소모임·학회 ‘예소사’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재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구강 보건 행사를 개최했다. 첫 영구치가 나는 6세와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9를 조합해 제정된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우들에게 올바른 구강 관리 정보를 알리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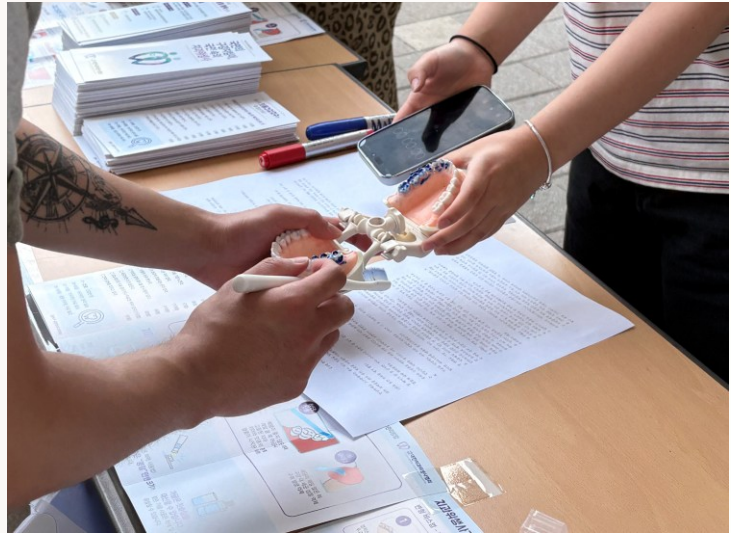
행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두 개의 부스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1구역에서는 평소 즐겨 먹는 식품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우식 유발 식품과 치아 보호 식품을 구분하는 퀴즈가 진행되었다. 이어 2구역에서는 덴티폼을 활용해 구석구석 얼룩을 제거해 보는 실습이 진행되어, 올바른 칫솔질 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각 미션을 마친 학우들에게는 구강 관리 용품을 증정하며 구강 건강 관리의 실천을 독려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다스우선(24학번) 학우는 “교육 자료를 기획하고 부원들과 소통하며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며, “현장에서 직접 학우들에게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구역 운영을 담당했던 전해민(26학번) 학우 또한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눈높이 교육을 실천하면서 치과위생사에게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대상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라고 전했다.

(계속)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구강 관리법을 재점검하고 스스로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소사는 이번 경험이 학우들이 평소 구강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행사가 재학생 모두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치아와 함께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실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예소사 편집부 이수연